

# KAIT NEWS



## 회원사와 하나 될 빛나는 축제의 장

11월 3일~11월 17일 까지...2007 KAITcup 축구대회

협회는 회원사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코자 '2007 KAITcup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25일 대진추첨을 거쳐,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연습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구대회는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특별행사다.

특히 각 회원사들은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단결과 응집력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축구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팀을 구성, 연습에 나서는 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SK 텔레콤, KTF, LG텔레콤, SK C&C, 한전KDN(주) 등 총 16개 기업들이 참가, 출전팀들은 매 주말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르며, 11월 3일 16강전을 시작으로 17일 결승전 및 3,4위전을 갖게 된다. 특히, 대회 진행 중 KAIT팀과 수원시청팀(예정)의 친선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우승팀의 이름으로 2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기증식도 갖는다.

우승팀에게는 우승컵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준우승팀은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고 MVP상과 다득점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협회는 "경기 종료 후 참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단발성 행사가 아닌 보다 많은 정보통신기업이 참가하는 공식대회로 격상시켜 회원사들의 체력증진과 친선도모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혁신기획실 총무파트 전화 02-580-0593,  
이메일 hirui@kait.or.kr

## 제32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단장 초청



협회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임차식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단장을 초청, 제32회 정보통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희망한국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인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소개되었다.

이 자리에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인사들이 대다수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정보통신부 정책과 소프트웨어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하여 고급인력양성이 시급하며 정부의 정책과 병행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임차식 단장은 "국내시장에 한계성을 주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수출멘토링 지원과 전자정부 등 IT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차기 제33회 정보통신포럼은 한국수출보험공사 조환익 사장을 초청해 11월말 개최될 예정이다.

情감있는 디지털세상  
스마트한이 KAIT가 함께 합니다

## M-safer가입자 10만명 돌파

협회와 정보통신부,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M-safer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휴대폰 신규 개통 시 SMS로 개통사실을 통보해 주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무료로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현황을 실시간 본인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 2005년 가입자 수 1만3203명에서 2007년 10월 현재 11만5천명으로 10만명을 돌파,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중소기업청 등 12개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협회는 최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에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주)엠펙온라인(엠펙), (주)코믹앤조이(미스터블루), 한국개인신용(올크레딧), 한국과학재단(한국과학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연수센터), 한국IT렌탈산업협회(IT도우미) 등 총 9개 사이트에 지난 10월 16일(화) 인증서를 부여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보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국과학재단(한국과학재단) 등 3개 사이트가 인증심사에 합격,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16개 사이트가 신청하여 12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으며,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올해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인 ▲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요사항 등의 절차마련 ▲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 등의 절차마련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내용 공지 등과 더불어 ▲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 이메일 발송 시 수신거부(국·영문) 방법안내 마련 ▲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 패스워드 작성규칙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인증신청 업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였다. 협회는 이번 12개 사이트 인증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마크 160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51개 등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상시모니터링 보강 및 CPO 교육시행 등 인증기업(기관)의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KAI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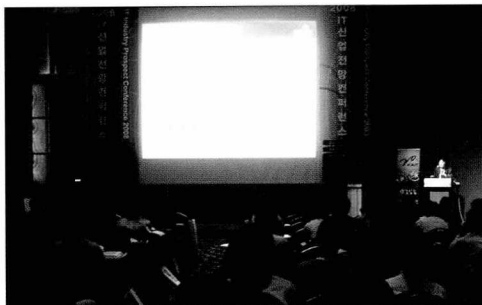


## 2008 IT 산업전망 컨퍼런스 개최

협회는 지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번영의 들판을 향한 u-IT산업의 향해'란 주제로 국내 IT 산업의 각 부문별 산업전망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2008 IT 산업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이 행사는 국내 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 국내외 경제 및 IT 산업전망, 디지털 미래를 위한 IT정책 및 기술, 주요 IT품목 현황 및 전망, 웹 2.0 패러다임과 SW산업 발전 전망, 국내외 IT 기술 및 시장 전망, IT목표시장 침투 국가별 전략 등 총 4개 트랙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 한국IT리더스포럼 추계 체육행사

협회 내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은 지난 10월 17일 경기 여주에 있는 렉스필드C.C에서 윤동운 한국IT리더스포럼 회장, 이교용 협회 상근부회장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체육행사를 가졌다.



## 회원사 해외연수 실시

협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삼성전자 등 협회 12개 임원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의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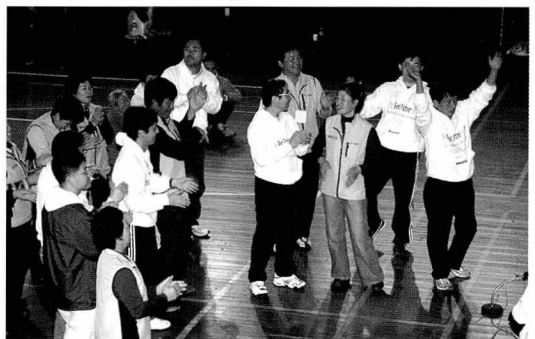
이번 연수는 스페인 SIMO 2007 전시회 참관을 통한 IT시장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전시회 참가 주요업체와의 간담회 및 현지 IT업체와의 미팅 등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또한 연수 기간 중 스페인 인접국인 포르투갈을 방문해 문화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情감있는 디지털시상  
스마트한이 KAIT가 함께 합니다

## 1사1촌 한마음으로 뭉쳤다

### KAIT와 함께하는 와봉사랑 가을운동회

협회는 지난 10월 19일(금)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 2리 군민체육회관에서 임직원 60여명과 정동 2리 마을주민 80여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AIT와 함께하는 와봉사랑 가을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자매결연 마을과 협회 임직원 간의 유대감 강화와 한마음 한 뜻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팀', '우리팀' 등 전체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협회 이교용 상근부회장은 "자매결연을 맺은 정동 2리 마을과는 그동안 마을행사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교류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더욱더 큰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협회와 마을 구성원이 함께 팀을 이뤄 족구, 단체 줄넘기, 장애물 달리기, 떡메치기 등 7개 종목에 걸쳐 풍성한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체육행사장 내 마을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오이, 호박, 고구마, 꿀 등 친환경 농산물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동2리에서 생산된 무공해 농산물을 행사 상품으로 마련해 훈훈한 결연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정보통신 유관기관 및 협회 회원사들이 기증한 마우스, 키보드 등 IT 제품을 정동2리 마을에 전달하는 '사랑의 IT제품 나누기' 시간을 마련, IT봉사활동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협회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 산하 17개 유관 협?단체와 함께 '정보통신 유관 협·단체 협의회 사회봉사대'를 결성해 정동 2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사무국을 맡아 활동 중이다.



## “선진한국을 위한 IT 성장동력” 한국IT리더스포럼 10월 정기조찬회



한국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학·연 핵심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운) 10월 정기조찬회가 지난 10월 23일(화) 오전 7시 30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진대제 대표가 ‘선진한국을 위한 IT 성장동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진대제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IT가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듯,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IT839’는 이를 실현하는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진 대표는 강연에서, “IT839는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IT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하지는 것으로 참여정부 IT산업 정책의 근간”이라며 “현 정부 들어 매년 IT산업이 4~5%대 성장하는 것도 IT839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지상파DMB가 시범서비스된 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와이브로가 전세계 3G(IMT2000)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하는 국제 표준 규격의 하나로 채택되는 등 세계 IT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 해외 IT협력단 파견 헝가리, 루마니아에 12개 중소기업 파견

협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12개 중소기업을 파견했다.

이번에 파견된 동유럽 IT협력단은 이동통신, 유·무선 통신, 초고속인터넷, 방송, 위성, SoC, 디지털 콘텐츠, S/W, 정보보호, 부분품 등 IT산업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다.

협력단은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차례로 방문해 각 국가에 대한 시장진출 전략 및 IT비즈니스 환경, IT산업 및 시장동향, 참여기업의 제품홍보 및 기업설명 등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또한, 협회와 루마니아 IT협회(ATIC) 간 MOU를 체결,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체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폭넓은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협회는 그동안 해외 IT협력단 파견 지원을 통해 한국 IT제품 인지도 향상에 주력하고, 우수 기술력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현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이고 현지 정부 및 IT유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후속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3일에는 약 15개 업체가 참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포르투갈 IT협력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情감있는 디지털시상  
스무살이 KAIT가 함께 합니다

## 제 7회 모바일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SK텔레콤 단말 플랫폼 'T-PAK' 대통령상 수상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7회 모바일기술대상' 시상식이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이기태 협회 회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이동통신 3사 대표 등 정보통신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모바일 기술대상은 정보기술의 혁명이라 불리는 모바일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 제품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모바일 테크놀러지 관련 시상제도로 대통

령상, 국무총리상, 정보통신부장관상 등 총 10점이 시상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건이 출품되었으며, 이 중 대통령상은 SK텔레콤의 'T-PAK' 이, 국무총리상은 삼성전자의 'Ultra Messagig HSDPA 스마트폰'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SK텔레콤의 'T-PAK' 은 일종의 단말 플랫폼으로 단말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할 때 또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초기 단계에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검증 확인해 볼 수 있는 만능구현 장치다. 모바일기술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양대 정장호 교수는 "지금까지 기존 단말기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메뉴와 서비스를 자기 의도대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T-PAK의 출시는 우리나라 단말기에 대한 설계 제조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상은 이쓰리넷의 '스타비츠', SK텔레콤의 'Q-spider', 삼성전자 휴대폰 'SGH-H500/510' (수출), 'SCH-B640' (국판) ▲한국경제신문사장상은 디지털아리아의 '모바일플레이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은 파토즈의 'Ubimosque' ▲SK텔레콤사장상은 인트로모바일의 'SmartPath' ▲KTF사장상은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IMS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솔루션' ▲LG텔레콤사장상은 클루엠의 'Mobile One-Time Barcode' 가 각각 차지했다.

